

**입 냄새 지속 맨 속병의
심... 양치질 하면 대부분 퇴치**

입 냄새는 성인의 50%가 겪는 흔한 문제. 아침에 생기는 입 냄새는 일시적이지만 냄새가 오래 갈 경우 병적인 것으로 봐야한다.

▲ 원인

▽ 치과적 요인 - 원인의 90%는 입 안에 있다. 음식을 찌꺼기와 침 안에 있는 단백질이 입 안의 세균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황 화합물'이 냄새를 일으키는 원인물질. 또 충치나 불량한 보철물, 사랑니 주위의 염증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 비치과적 요인 - 코나 목에 이상이 있어 냄새가 나는 경우 이비인후과를 찾아 축농증과 편도선염을 치료해야 한다. 이비인후과에서도 이상이 없다면 내과로 가야 한다.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내쉬었을 때 냄새가 나면 대개 내과 질환에 의한 냄새.

원인 질병은 간경변·당뇨·신부전증·위장병 등. 과음에 의한 급성간경변인 경우 계란 썩는 듯한 구린내가, 당뇨병인 경우 시큼 달콤한 냄새가, 신부전증에서는 소변냄새 같은 지린내가 각각 풍겨 나온다.

▲ 진단 - 친구나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말을 해서 알려 주거나 인상을 찌푸려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구취(口臭)클리닉이 있는 치과에서 헬리미터란 기기로 원인물질인 '휘발성 황 화합물'을 측정하고 타액분비검사를 해 진단.

▲ 예방 - 입 안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 양치질을 할 때도 세균의 분해작용이 이뤄지는 혀의 뒷부분과 잇몸 등을 잘 닦는다.

아침 기상 직후 입 안에서 냄새가 날 때는 물을 마시면 없어진다. 배고픔과 긴장도 입 냄새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식생활과 달걀·육류 등을 먹고 난 뒤에는 양치질을 잘 해야 한다. <동아일보> ㉔

**뇌졸중, 7시간 내 치료
하면 큰 효과**

뇌졸중이 발생할 경우 7시간 이내에 치료하면 높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임상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이광호 교수팀은 '97년 5월부터 '98년 8월까지 뇌졸중 환자 17명을 대상으로 7시간 이내에 치료를 한 결과 1명만 경미한 출혈이 있었을 뿐 사망 등 부작용 없이 뚜렷한 호전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뇌졸중은 발생 3시간 이내에 치료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미국신경과학회(ANN) 치료기준과 달리 7시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교수팀은 뇌졸중 환자에게 '3위상 나선식 CT'라는 새로운 영상기법을 적용, 합병증 위험이 적은 환자 17명에게 '혈전용해제 정맥주사 치료'를 시행했다.

이 결과 17명 중 8명(47.1%)은 치료 시작 하루 만에 뚜렷하게 상태가 호전되었고 나머지 중에서도 1명에서만 경미한 뇌출혈이 발생했을 뿐 모두 상태가 호전되어 지금까지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연합뉴스> ㉔

**한국인 1회 음주량, 소
주 1.17병 맥주 2.75병**

술을 마시는 남녀의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2홉들이)는 1.17병, 맥주(500ml)는 2.75병이며 월평균 술값은 13만 400원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후 실수를 해서 사고나 재해를 당했던 경우가 13.1%에 달했으며 최근 1년 내 음주운전을 경험한 경우도 17.9%나 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만 15세 이상 남녀 1천 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음주행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술을 마시는 사람의 1회

평균 음주량은 남자의 경우, 소주 1.26병, 맥주 3.22병, 여자는 소주 0.85병, 맥주 1.91병이었다. 특히 소주는 20대 미만의 미성년계층이 1.32병으로 가장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20대 1.27병, 40대 1.14병 30대 1.06병 등 순으로 조사됐다.

첫 음주 시기는 만 20세 미만 미성년기가 55.7%에 달했으며 만 20~25세가 38.9%였다.

월평균 음주비용은 남자가 16만5천원, 여자가 4만 710원으로 남녀평균 13만 400원이며 술값 때문에 경제적 곤란을 겪은 경험도 31.1%에 달했다.

술을 마신 후 실수로 사고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험은 남자 15.9%, 여자 5.7%로 조사됐다. 또 조사대상 중 남자 21.2%, 여자 7.1%가 최근 1년내에 음주운전 경험이 있었으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남자 1.0%, 여자 1.8%로 여자쪽이 많았다.

술자리 횟수는 음주자의 62.2%가 2차이상 마시며 음주자의 34.5%는 취할 때까지 계속 술을 마신다고 답변했다. 특히 술을 마시는 남녀의 66.1%는 음주강요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같은 이유 등으로 음주자의 60.6%는 술잔 주고받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연합뉴스> ㉔